

양계용 사료가격 현행수준 유지할듯 —유우 및 양돈사료가격 대폭인상—

- ◇ — 정부관리양곡 부산물과 민수도입소맥가공 부산물 가격의 — ◇
- ◇ — 현실화 및 어분을 비롯한 단백질사료가격의 상승으로 배 — ◇
- ◇ — 합사료의 가격변동이 불가피하겠으나 다행히 옥수수 공 — ◇
- ◇ — 급가격의 인하조치로 강류사료나 기타 부원료가격의 상 — ◇
- ◇ — 승을 감안한다면 양계용사료가격은 대추사료, 산란 — ◇
- ◇ — 중기, 산란말기사료를 제외하고는 현행 수준을 유지할 — ◇
- ◇ — 것으로 기대된다.<편집자> — ◇

조 홍 래
〈한국사료협회 기획부장〉

1. 개 요

1975. 9. 23-4일 양곡부산물판매가격 인상에 이어 1975. 12. 31일자로 재차 인상 현실화한 결과 배합사료원가 구성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또한 하반기 이후 배합사료 수요증가에 비하여 어분을 비롯한 모든 국내산 단백질사료공급이 부족현상을 나타내어 배합사료의 가격변동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옥수수 수입가격이 하락되어 옥수수 공급가격을 톤당 C & F \$135 수준까지 인하조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양계용사료는 대추사료나 산란중기, 산란말기사료를 제외하고는 종전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강류사료의 배합율이 높은 낙농, 양돈 및 비육우사료 등은 어린가축사료를 제외하고는 원가가 양돈의 경우 8%, 착유 1호 사료의 경우 11~12%의 원가상승요인을 갖어 왔다. 그러면 1976년도 사료수급계획의 대강을 살펴보고 양곡부산물판매가격의 현실화 및 주원료인 옥수수의 수급동향, 주요원료가격의 변동 추세 및 가격전망과 합리적인 대책을 기술해 보고자 한다.

2. 1976년도 사료수급계획의 개요

농수산부에서는 1976년도에 농후사료 3,940천톤과 조사료 6,243천톤으로 계 10,183천톤을 공급하는 사료수급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다. 따라서 농후사료 3,940천톤은 유통사료로서 1,961천톤을 공급하고 농가자급사료로 1,979천톤을 공급할 계획이며 다시 유통사료는 전년도 이월량 133천톤, 수입사료 511천톤, 국내산 원료 689천톤으로 계 1,333천톤을 원료로 하여 120만톤의 배합사료를 생산하여 공급하고 다시 내년도로 133천톤을 이월공급하며 이밖에 서감사료 12만톤, 단미사료로서 508천톤을 공급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양계용 배합사료의 수급원활과 가격안정을 기하려면 수입사료의 적기공급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아지는 바 1976년도 수입사료의 규모를 보면 옥수수는 48만톤이면 월간 수요량을 4.2-4.4만톤으로 가정할 때 12만톤의 전년도 이월량을 합치면 수급상 차질은 없겠으나 대두박을 31천톤 공급한다는 것은 전년말 재고를 13천톤이라 가정한다 하여도 어분생산의 획기적인 증가가 없는한 부족현상이 야기될 우려도 없지 않다.

<표 1>

정부관리양곡 부산물 판매가격 변동상황

(단위 : 원)

품 목	산 량 kg	68. 4. 1	71. 11. 1	A			B		C		변 동 율(%)	
				73. 4. 3	75. 9. 24	75. 12. 31	C/A	C/B	C/A	C/B		
백 새 미	54	1,100	1,200	1,240	2,160	3,100	150	43.5				
설 미	54	1,100	1,200	1,240	1,980	3,070	147.6	55.1				
미 강	36	360	560	580	1,380	2,000	244.8	44.9				
탈지강(수출)	36	257	390	390	930	1,350	246.2	45.2				
맥 새	54	700	1,000	1,000	1,660	2,410	141	45.2				
맥 강	36	270	410	420	980	1,380	228.6	40.8				
압 맥 새	54	700	1,000	1,000	1,700	2,150	115.0	26.5				
압 맥 강	36	270	410	420	980	1,300	209.5	32.7				
소 맥 새	54	910	1,000	1,000	1,700	2,960	196	74.1				
소 맥 강	36	270	410	420	980	1,270	202.4	29.6				
소 맥 피	36	320	450	460	1,080	1,520	230.4	40.7				
압 소 맥 새	54	910	1,000	1,000	1,700	2,340	134	37.7				
압 소 맥 강	36	270	450	460	1,080	1,400	204.4	29.6				

그리고 농수산부에서는 배합사료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사료가격안정기금으로 20억원을 적립할 계획으로 있는 바 옥수수 공급단가를 C&F \$ 135로 확정하였다 하여도 현재와 같이 옥수수 시세가 안정된 시기에 구매한다면 톤당 \$ 10 정도의 안정기금확보는 무난하리라 기대됨으로 원료의 적기구매여하에 따라 안정기금의 적립이 이루어질 것이다.

3. 양곡부산물 판매가격 인상 실시

농수산부에서는 지난 75. 12. 31일자로 9/24일에 이어 정부관리양곡부산물 판매가격과 민수도입소맥가공부산물 판매가격을 대폭인상 실시할 것을 고시하였다. 이와같은 양곡부산물 판매가격의 현실화는 마땅히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래전부터 거론되어 왔기 때문에 하등 놀랄 이유가 없겠으나 이와같이 쌀 양곡부산물의 특혜를 받아온 일부 양축가나 낙농 및 양돈용 배합사료 이용농가의 사료구입비는 그만큼 상승하게 될 것이므로 일시적이나마 적지 않는 근심이 되리라 믿어진다. 그러면 얼마나 가격현실화가 이루어졌는가를 살펴 보고자 한다.

가. 정부관리양곡부산물 판매가격

<표 1>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1975.9.24

일과 12.31일에 정부관리양곡부산물 판매가격의 대폭적인 가격인상을 단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번 가격인상은 9/24일자 인상을 기준하면 최저 26.5%에서 최고 74.1%의 대폭적인 인상이고, 이를 1975.9.24 이전 판매가격과 대비하면 최저 134%에서 최고 246.2%의 엄청난 인상이다. 그러나 이와같이 인상폭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가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감내하면서 양축가에게 간접보상을 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그러한 결과 기타사료와 정부관리양곡 부산물간에는 현격한 가격차가 생겨왔으므로 이번의 인상조정으로 말미암아 사료간에 가격차가 축소되어 유통의 정상화가 실현될 수 있으므로 합리적 시책이 강구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나. 민수도입 소맥가공부산물

농수산부에서는 사료관리법 제 6 조(사료수급에 대한 특별조치)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료대책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도입양곡의 가공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의 매도가격과 매도방법을 지정하는 등 이와같은 제도가 1968. 7. 1부터 실시되어 왔다. 민수도입소맥 가공부산물인 소맥피는 우리나라의 전업 또는 기업양축가가 소요로 하는 사료원료 중 옥수수 다음으로 중요한 품목으로 연간 생산량은 25만톤에서 36만톤이나 된다. 이와같은 소맥부산물도 정부

관리양곡부산물 판매가격인상과 때를같이 하여 1975. 9. 23일에 36kg들이 포장당 650원에서 1,080원으로 67%의 가격인상을 단행한 바 있고 다시 1975. 12. 31일자로 1,520원으로 40.7%를 인상한 결과 종전의 650원과 비교하면 230.4%가 인상된 셈이다. 이와 같이 부산물가격을 저렴하게 책정한 결과 강류사료로 수요가 집중되어 강류사료 파동을 유발시킴은 물론 쌀 원료의 과잉사용으로 사료의 낭비를 가져왔기 때문에 마땅히 현실화조치되어야 한다고 보아 이번 현실화조치는 현실에 부응하는 가격 조정이라 보아진다. 또한 이제부터는 타 사료와의 격차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사료의 효율적인 이용이 보장되리라 기대된다.

<표 2> 민수도입소맥가공부산물 판매가격 변동
(단위: 원)

변동년월일	36kg포대당가격	kg당가격
1968. 7. 1	400	11.11
'71. 6. 7	440	12.22
'71. 8. 25	500	13.89
'73. 7. 11	650	18.06
'75. 9. 23	1,080	30.00
'75. 12. 31	1,520	42.22

4. 배합사료생산추세

1975. 1~11월까지의 배합사료 생산실적을 보면 전년 동기간 대비 3.7%가 감소되었다. 그러나 양계용 배합사료생산량을 보면 육추용 사료는 10.7%, 육계용사료는 16.2%가 증가하고 산란용사료는 4.2%가 감소하였다는 것이 <표 3>에 나타나 있다. 그러나 75.1~11월 생산량을 월별로 분석 검토하여 보면 육추용 사료생산량이 9월부터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비하여 육계용사료가 9월 이후 감소추세에 있다. 이와같은 추세에 의하면 12월 이후의 육계출하량 감소를 가져오기 때문에 육계가격이 상승될 것이라는 전망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산란용 사료 생산량을 보면 7월 이후 월간 2~3천톤씩 증가하고 있으며 12월 생산통계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11월

생산량보다 증가추세에 있는 바 제란수요의 증가가 없는한 공급량의 증대로 난가는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추측된다. 양계용 사료 이외에 양돈용사료는 전년 동기간 대비 29.9%, 비육용사료 24.1%, 농축사료 등 기타사료가 24.4%씩 각각 감소되고 낙농사료만이 26.3%가 증가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추세를 감안한다면 1974년도 배합사료생산량 927,170톤에 비하여 거의 3만톤 가까이 생산량이 감소될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하반기의 생산량 증가가 현저히 이루어지고 있어 금년도 배합사료수요는 농수산부계획인 120만톤에는 미치지 못한다하더라도 상당히 증가되리라 보아지며 하반기 이후의 사료수요증가에 비하여 국내 단백질사료 공급량이 격감되었기 때문에 수급상 차질이 유발되어 단미사료가격이 앙등하고 있는 것 같다.

5. 사료용 옥수수 수급동향

1976년도 사료용 옥수수 48만톤 도입계획량 중 1~4월까지의 옥수수 수급계획을 보면 <표 4>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현재 확보(구매확정분)된 물량으로 5. 14일까지 공급이 가능하다. 또한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옥수수가 항상 재고로 이월되고 있으므로 수급상 차질은 없으리라 보아지며 최근의 옥수수 도입상황을 소개드리면 <표 5>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1월초순에 60,060톤이 인천과 부산에 각각 도착되었고 2월하순에 4만톤 3월말에 4만톤 계 8만톤이 인천으로 도착예정이고 이 밖에 2만톤을 구매하여 3월말에 부산에 도착시킬 계획으로 있다. 현재 옥수수 구매단가는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21.31~126.95 수준으로 하락된 시세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사료곡물의 국제시세를 감안할 때 미국농무성이나 생산자단체의 말을 빌리면 옥수수의 부של당 생산비가 \$2.50선으로 보는 편이 많다. 그렇다면 톤당 \$99이 되며 미국내 조작제비와 선임을 가산하면 최하 \$117 이상이 된다. 그러므로 \$120 이하의 원료구매는 사실상 어려우리라 전망된다. 따라서 현

<표 3>

1975년도 배합사료 생산실적

(단위: 톤)

월	별	양 계 용				양돈용	낙농용	비육우용	기 타	계
		육추용	산란용	육계용	소 계					
1975.	1	6,934	26,268	4,515	37,717	12,217	13,241	3,416	1,029	67,620
	2	7,261	31,424	5,811	44,496	12,137	11,987	3,423	705	72,748
	3	7,019	28,495	6,452	41,966	11,330	14,449	2,933	1,092	71,770
	4	6,459	25,456	6,298	38,213	10,954	11,193	1,958	695	63,013
	5	7,570	28,074	7,704	43,348	11,972	11,940	2,137	1,071	70,468
	6	9,548	31,054	10,209	50,811	10,582	12,120	1,969	682	76,164
	7	8,288	26,225	9,388	43,901	9,790	10,415	1,871	741	66,718
	8	8,809	29,450	9,048	47,307	10,417	11,679	2,669	1,855	73,927
	9	8,938	32,403	9,578	50,919	10,141	11,991	3,687	1,101	77,839
	10	9,664	34,542	8,416	52,622	11,090	14,026	3,877	1,500	83,115
	11	11,184	36,513	7,836	55,533	11,483	13,511	2,835	1,046	84,408
	1~11 (A)	91,674	329,904	85,255	506,833	122,113	136,552	30,775	11,517	807,790
	구성비 (%)	11.4	40.8	10.5	62.7	15.1	16.9	3.8	1.5	100
1974.	1~11 (B)	82,781	344,212	73,390	500,383	174,182	108,133	40,546	15,233	838,477
	구성비 (%)	19.9	41.0	8.0	59.7	20.8	12.9	4.8	1.8	100
	증가율(A/B)	10.7	△4.2	16.2	1.3	△29.9	26.3	△24.1	△24.4	△3.7

<표 4>

옥수수 수급계획 (협회 위원분)

(단위: 톤)

구 분	75. 12월말 재고량	월 별 수 급			
		76. 1	2	3	4
① 공 도 입		37,354	51,369	46,824	59,279
		(33,000)	(40,000)	(40,000)	
		29,500	35,000	35,000	
급 계		(27,060)		(20,000)	
		93,914	86,369	98,824	
② 수 요		39,545	39,545	39,545	39,545
③ 익월 이월량	37,354	54,369	46,824	59,279	19,734

※ () 내는 총도입량(농협분 포함)

<표 5>

옥수수 도입 상황

(단위: %)

순 위	도입계획량	C&F 단가 (弗)	출항예정	도착예정	도착량
1	33,000	126.95	75. 12. 1	76. 1. 5	인 천
2	27,060	126.95	75. 12. 5	1. 7	부 산
3	40,000	121.31	76. 1. 20	2, 23-25	인 천
4	40,000	122.49	76. 2. 10-29	3. 31	인 천
계	140,060				

수준에서 옥수수 수입가격이 내린다 하여도 \$2-3 이상은 내려지기 어려울 것이다. 만약 어떤 요인에 의하여 가격이 뛰기 시작한다면 \$10 정도의 상승은 순간적인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9~10월분까지의 사용량을 선물구매하여 사료수급의 안정을 기하는 것도 시도해 볼 만한 일이라 사료되는 바 톤당 \$2~3의 손해를 각오하고 20만톤 정도의 옥수수를 현재

시점에서 확보(구매)할 것을 권유하고 싶다. 현재 시세로 옥수수를 구매한다면 안정기금도 톤당 \$10 정도의 확보가 가능하고 가격보전 없이 적어도 미국의 금년산 작황이 확정되는 시기까지 배합사료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6. 주요 단미사료시세

1976. 1. 15 현재 서울지방의 주요단미사료시세를 보면 <표 6>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도입옥수수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상승추세에 있다. 76.1.15 현재 시세를 전년 동일자와 비교하여 보면 도입옥수수 4.6%, 대두박 14.1%가 하락한 반면 임박이 6.6%, 호박박이 4.7%, 채종박이 19.2%나 크게 뛰었고 탈지강이 14.1%, 소맥피가 118%나 폭등하였으며 어분 상품이 3.6%, 어분중품이 7.5%가 각각 상승하였다. 또한 전월동일자 시세와 비교하면 도입옥수수 5.8%의 하락현상을 제외하고는 소맥피의 36.1%가 가장 많이 뛰었고 기타 모든 원료들이 1.4%~9.1%까지 양등되고 있는 바 이와같은 원인은 강류사료 가격인상에 따른 심리적 변동과 가수요증가 그리고 국내 단백질사료의 풀귀현상이 원인이 되고 있으나 4월의 어분생산시기까지 계속 이와같이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이다.

<표 6> 주요단미사료시세표

종 별	서울지방도매시세			가격변동율 76.1/15	
	75.1/15	75.12/15	76.1/15	75.1/15	75.12/15
옥수수 (도입)	78.52	79.52	74.87	△4.6	△5.8
" (국산)	86	93.50	—	—	—
대 두 박	133.25	112.25	114.50	△14.1	1.8
임 박	86.75	87.50	92.50	6.6	5.7
호 마 박	86.25	87.50	90.33	4.7	3.2
채 종 박	62.50	74	74.50	19.2	0.7
옥수수 배아박	55	—	60	—	9.1
맥 강	—	—	—	—	—
탈 지 강	42.50	45.75	48.50	14.1	6.0
소 맥 피	21	33.64	45.79	118.0	36.1
어 분 (상품)	140	143	145	3.6	1.4
어 분 (중품)	120	120	129	7.5	7.5

7. 배합사료가격조정 및 전망

75.12.31일자로 정부관리양곡부산물과 민수도입소맥가공부산물 판매가격을 대폭 인상키로 현실화함에 따라 배합사료가격의 직접적인 변동요인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의 국제사료곡물시세가 하락되었으므로 옥수수 공급가격의 하향조정이 가능하여졌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배합사료의 원가구성요인을 검토하여 본 결과 강류사료나 기타 부원료가격의 어느 정도의 상승요인을 감안한다 하여도 양계용 사료가격은 현행 판매가격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1/1일 사료가격안정 기금심의회에서는 옥수수 공급단가를 C&F 톤당 \$135로 조정하여 공급계 하므로써 톤당 \$6정도를 인하키로 하였다. C&F 톤당 \$135을 기준한 배합사료공장의 옥수수 이용가격은 톤당 75,216원으로서 종전의 79,674원에 비하면 5.6%가 하락한 셈이 된다. 따라서 종전 배합사료가격 조정시기였던 75.9.23일과 76.1.15 현재 원료사료가격의 단가를 비교하여 옥수수와 기타 곡류 및 골분이 3.7%~5.6%가 하락하였을뿐 강류사료는 36.1% 박류사료가 9.2%~14.2%가 상승하였고 어분이 2.8~7.5% 양등하였으며 유류대 및 수송비와 인건비등 원료가격 이외의 원가상승도 무시하지 못할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어 배합사료가격을 자극하고 있으며 특히 인상폭이 가장 큰 강류사료의 배합율이 높은 양돈 및 축우사료의 가격인상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양

<표 7> 도입 옥수수 원가 산출

항 목 별	금 액	산출조기
① 원 료 대	65,475	\$ 135×485
② 수 입 제 비	1,271.24	
③ 금 리	2,125.82	L/C 개설시부터 75일
④ 하 역 제 비	2,058.82	
⑤ 국내수송 감량 제 비	2,203.43	인천→서울
⑥ 방 위 세	1,631.40	CIF 가격의 2.5%
계	175,215.71	

계용 배합사료의 경우라 할지라도 대추용 배합사료나 산란중기, 후기용 사료도 약간의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금차 강류사료등 양곡부산물 판매가격 인상에 따른 배합사료가격 조정은 옥수수외 공급단가를 하향 조정함으로써 양계용사료는 현행 판매가격을 계속 유지시키도록 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표 8> 원료사료가격 단가 대비표

품	부	종전가격 75.9.23	1/15 현재시세	상승율 (%)
옥수	수	79,674	75,216	△5.6
기타	곡류	60,234	57,541	△4.5
강류	(소맥외 기준)	33,636	45,786	36.1
대두	박	104,428	116,295	11.4
박류A	(임박, 호박)	83,750	91,415	9.2
박류B	(제중박)	65,250	74,500	14.2
어분	상품	141,000	145,000	2.8
어분	중품	120,000	129,000	7.5
골	분	83,000	88,000	6.0
패	분	7,200	6,930	△3.7
식	염	20,000	22,500	12.5
인산	칼슘	140,000	146,670	4.8
철	가	330,000	330,000	—
녹	사료	79,478	79,478	—

7. 대 책

위에서도 지적한 바 있으나 75.12.31일자로 정부관리양곡부산물 가격이 현실화 인상됨에 따라 강류사료를 많이 배합하는 낙농 및 양돈용 배합사료는 상당한 가격인상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나 배합사료 가격안정과 양축가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배합사료공장에서는 농축배합사료를 생산공급하고 양축가는 소요강류를 직접 구매하여 자가배합 이용할 수 있도록 실수요양축가 및 회원공장을 강력히 지도 독려하여 달라는 농수산부장관의 공한이 사료조절단체인 농협중앙회와 한국사료협회에 전달된 바 있다.

현재 배합사료원가구성내역을 종전원가와 대비하여 볼 때 배합율과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사람에 따라 약간의 가격차는 있겠으

나 씨폐지사료는 8~9%, 착유 1호 사료는 1%~12%의 가격차가 있다고 추정된다. 그러나 배합사료공장은 강류가 들어 있지 않는 농축배합사료만을 생산판매하고 양축가는 제분공장이나 또는 시, 군축협에서 직접 강류사료를 구매하여 자가배합하게 되면 사료구입단가는 씨폐지사료의 경우 차이가 없고, 착유 1호 사료의 경우 2% 수준의 사료비가 더 들게 되기 때문에 농축배합사료와 강류사료의 직접 구입 이용을 권장하게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금차 배합사료가격조정과 대책을 아래와 같이 간추려 여러분의 양축경영에 참고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 양계용 배합사료가격은 증진판매가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대추사료 등 제외).

둘째 : 씨폐지용배합사료와 착유 1호등 강류사료 배합율이 높은 배합사료는 생산을 억제한다.

셋째 : 양돈 및 축우사료는 농축배합사료를 사료공장이 책임생산하여 실수요 양축가가 직접 강류사료를 구입해다가 자가배합 이용함으로써 사료비를 절감시켜 주어야 한다.

단, 전업 및 기업양축가는 강류사료의 직접 구매가 용이하나 부업양축가는 납세차번호가 없고 물량이 적어 직접 구매가 어려우므로 배합사료 이용이 불가피하게 되는 문제점은 있다.

네째 : 기타사료는 각 사료공장이 실시 원가구성요인을 감안하여 조정하되 인상폭을 최대한으로 축소하여 양축가의 사료비 부담을 줄이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는 바이다.

